

투데이 칼럼

북한 전원회의와 올드보이 귀환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사 위성 발사 실패와 최근 더 심각한 진 식량난, 경제난 등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전원회의를 통해 77세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과 79세의 오수용 전 경제부장이 복귀한 것도 눈에 띈다. <올드보이>들을 다시 기용한 이유는 뭘지, 효과는 있을지 궁금하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북한의 정찰 위성이 서해에 추락한 뒤 처음 열렸다. 그리고 발사 실패를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초췌한 모습으로 참석했다.

관영 매체들은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연설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집권 뒤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은 건 2016년 5월 한 번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생략했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원회의에선 건설과 유제품 보급 등 일부 경제성과를 내세웠다. 한편으로 경제부장을 또 교체했다. 2021년에 경제부장에 임명됐던 올해 79세 오수용을 복귀시킨 것이다.

최근 영국 BBC는 북한 주민 3명을 비밀 인터뷰했다며, 한 마을에만 5명이 굶어 죽는 등 식량난이 심각하

다고 보도했다. 국정원도 지난달 북한의 아사자가 예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곡물 가격은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한 체제가 가까운 시일 안에 급격하게 흔들릴지 촉각이 곤두선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2월부터 시작해서 점차 북중 교역이 단계적으로 계속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 자재부터 시작해서 소비재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

하노이 북미회담 실패로 물러난 김영철 전 노동당 비서가 통일전선부 고문 자격으로 재등장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영철은 대남 강경파이자 원칙주의자로 2010년 친인환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을 주도한 것

으로 알려졌다. 김영철 복귀로 북한이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나갈 거란 분석이 나온다. 하노이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걸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재확인하면서, 기만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했다. 자주 쓰던 신냉전, 다극화라는 표현 대신 한반도 정세가 견장을 수없이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정세를 분석했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기간 나온 점도 흥미롭다. 이처럼 현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대미 전략을 어떻게 펼칠지 주목해야 한다. 무인기 도발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군사용 드론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큰 규모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난해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북한 무인기는 5대다.

한 대는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부근 비행금지 구역에까지 침투했는데, 당시 군은 이를 제때 격추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정밀 정찰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엔 현재까지 식별된 것 중 가장 큰 날개폭 35m의 신형 무인기가 민간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오는 9월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한다.

드론 전력을 활용해서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군은 북한 전역을 정찰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차례로 확보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무인기와 길러 드론 등도 개발하고 있다. 5월의 한미 연합·합동 회력겨울철훈련에선 핵심 표적을 직접 공격하는 자폭 드론이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북한이 또 도발하면 그 수위에 따라 10배 이상 응징한다는 공세적 원칙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내려오면 50대 이상을 올려 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칫 남북 간 확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경로당 운영비 횡령 관행

최근 노인회의 경로당 운영비 횡령 관행이 불거졌다.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에 내는 연회비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발적 납부가 아닌 지자체 보조금에서 빼내 지급하고 이 돈으로 각 노인회 지회장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왔다.

불투명한 노인회 지회 운영 방식도 논란이다. 노인회 지회장들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동안 경로당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이 방치된 것이 문제였다. 결국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노인들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특정 계층의 월급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곳곳에서 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고 횡령 아

니나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관역자치단체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노인회와 경로당에, 운영비에서 회비를 납부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다.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각 시군에 보낸 지침에 병난방비와 양곡비로 써야 하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노인회 회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지자체의 경로당 운영비 집행 기준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노인회를 지도 감독하는 시군조차도 모른다 뒤늦게 지침을 통보하느라 허둥대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경로당 운영비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국적으로 경로당은 6만 8천여 곳이다.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어 매년 100억 가까운 보조금이 빼돌려진 것이다. 보조금 집행이 명확한 규정 없이 방치되고, 관리감독에 손을 놓다시피 한 것이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

디폴트(default)는 '기본 설정값'이나 '사전 설정값'을 뜻하는 'default'에서 파생되었다. 채무자가 '기본 설정값'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금융 디폴트는 채무자의 부도, 채무 불이행, 채무부도 등 여러 용어로 불린다.

디폴트는 금융 리스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반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채무자에 대한 일시적인 상환 유예 기간을 말한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다.

한편 서양 문명은 기후변화와 빈부격차 확대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빈부격차가 계속될 경우 2050년쯤에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부유-빈곤 두 부분으로 분열되면서 몰락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재산을 합친 금액은 전 세계 인구의 하위 50%인 30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을 능가하

고 있다. 한편 미국의 국가 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디폴트 위기는 미국이 부채를 갚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미국 부채의 많은 부분은 복지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부자들은 매년 부를 늘리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국가 부채로 복지 서비스가 받고 있다. 빈부 격차의 확대와 '빛을 통한 복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악순환이 바로 선진국 함정이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국가 부채를 크게 늘렸다. 2017년 20조 달러였던 부채가 몇 년 사이에 31조 달러가 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은 직접 돈을 분배하는 대신 경제 부문별로 투자하는 데 집중했다.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이 결과를 공유하면 발전이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소멸했다. 반면 빈부격차가 커지면 균형과 공평성이 깨진다. 선진국 함정에 빠진 서양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러시아 공격 이은 화재 진압하는 우크라이나 소방관



우크라이나 응급구조대가 제공한 영상 캡처 사진에 지난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므콜리아우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주택가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미-일 대표와 기념 촬영하는 김건 평화교섭부장



김건(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0일 일본 나가노현 가후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의에 참석해 성 김(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디게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